

2003. 11. 19 (수) 10:00
제104회 임시회 제 2차 본회의

근정질문

거창군의회 박점용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 점 용 의원입니다.

신전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 태 호 군수와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모든 군민에게 희망과 용기를 심어줄 『희망 21! 선택과 집중』이라는 민선 3기의 슬로건을 내걸고 시작한 올해도 이제 불과 1개월여밖에 남지 않았습
니다.

금년에 계획한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남은 기간 동안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본 의원이 평소 의정활동하면서 느낀바에 대해 한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수해복구 공사와 관련한 사항입니다.

지난해 태풍 루사로 인해 우리 군은 엄청난 피해를 입었습니다. 태풍피해 복구를 위한 공공시설 사업만 해도 882건에 무려 1,500억원이라는 사업비가 투자되었으며, 이는 우리 군의 2002년도 일반회계 당초예산 1,200억원보다 무려 300억원이 더 투자된 금액입니다.

그동안 우리 의회에서 수해복구 공사 현장방문과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많은 문제점들을 지적해서 시 정토록 수차에 걸쳐 촉구한바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군의회에서는 2003년도에는 수해복구에 역점을 두고 종합상황실을 설치하여 전 토목직 공무원들이 수해복구사업에 매달려야 한다고 촉구한바, 집행부에서는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으며, 또,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우수기 이전에 공사를

완료하겠다고 여러 차례 답변하였습니다.

그러나, 태풍 루사로 인한 수해복구공사의 우수기 이전인 2003년도 6월 30일까지 추진현황을 보면 총 882건 중 693건이 준공되고 189건이 시공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명시이월된 신원천 수해복구 공사등 14개 사업의 46개 사업장에 대하여는 공사감독 인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감리를 하였습니다.

감리발주는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하면 건설공사의 품질확보 및 향상을 위해 공사비가 100억원 이상으로 특수한 기술을 요하는 공사에 대해 전문감리회사에 맡기도록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토목직 공무원을 총동원할 생각은

않고 인력부족을 이유로 이들 회사에 감리를 맡겼 습니다. 본의원의 생각에는 100억원이라는 거액을 감리비로 버리지 마시고, 기술직공무원을 증원할 수 없는지 묻습니다.

첫째, 명시이월된 14개 사업, 46개 사업장에 대한 감리용역을 맡은 회사는 어디이며 몇 명이 상주하 였는지와 감리비는 어떤 예산에서 집행하였으며, 또, 용역기간은 언제까지로 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 시고, 둘째, 감리용역을 맡겼음에도 본 의원이 수차 례 수해복구 공사 현장을 점검하였지만 감리원은 한 사람도 만나보지 못했고, 현장과 맞지 않는 사 업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었 습니다.

감리원이 하는 역할은 무엇이며, 또, 감리가 한 일 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감리 시행중인 수해복구공사만이 현재까지 준공되지 않고 시공중에 있으며 태풍 매미가 내습할 당시 공사중에 있었거나 설계가 잘못된 대로 완공 처리한 곳 중에 이번 태풍 매미로 인해 다시 피해가 발생한 곳이 여러 곳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이런 사업장의 피해물량과 피해액이 얼마인지, 만약 공사 지연이나 설계 잘못으로 이번 태풍에서 재붕괴 되었다면 이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질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금년 9월 12일 내습한 태풍매미가 공공시설에 미친 영향에 대하여 제103회 임시회에서 채택된 촉구건의서에 대한 조치사항과 향후 처리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금년에도 태풍매미로 인하여 공공시설 피

해가 409건에 734억원이나 되는데 이제 한 달 후면 동절기로 공사를 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데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무엇이며 향후 계획에 대하여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채석장 복구와 관련한 사항입니다.

채석허가 완료된 주상면 소재 화신개발 채석장 복구와 관련하여 신문지상에서 행정절차상 처리가 잘 못되었다는 것이 수 차례 보도된바 있으며 올상반기 행정사무감사와 현장점검활동을 통해 그 실태를 파악하고 조속히 복구하여 민원을 해결하여 줄 것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적지 복구비 예치금 청구 소송에서도 우리 군이 패소하였는데, 이는 무사안일주의 행정의 좋은 예라고 하겠습니다.

화신개발 채석장에 대한 복구를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와 앞으로 복구대책에 따른 추진계획에 대하여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천면 거창석재의 경우 복구비가 거창군 세입·세출 외 현금계좌에 입금되어 있었는데도 인접한 고려석재는 행정 대집행을 하고 거창석재는 사업자에게 복구를 시켜 현재도 민원을 발생시키는 등 모순된 산림행정을 펼쳐왔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은 재발 방지를 위해서라도 확보된 현금을 사업주에게 내어주어 엉터리 복구를 시킨 원인규명을 철저히 하여 책임을 묻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군수의 책임 있는 답변을 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